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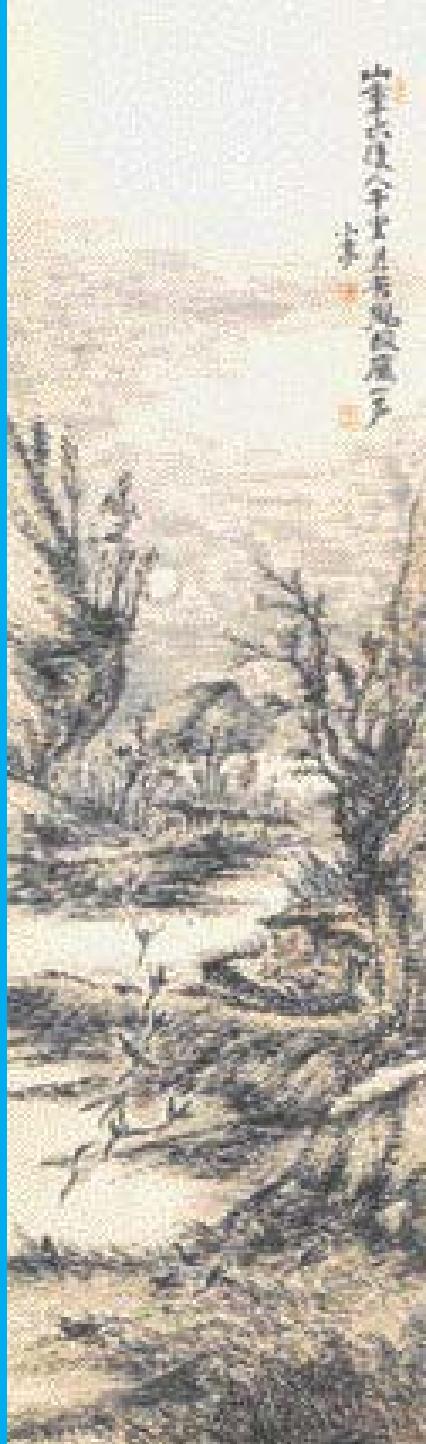
## 광주서

## 200억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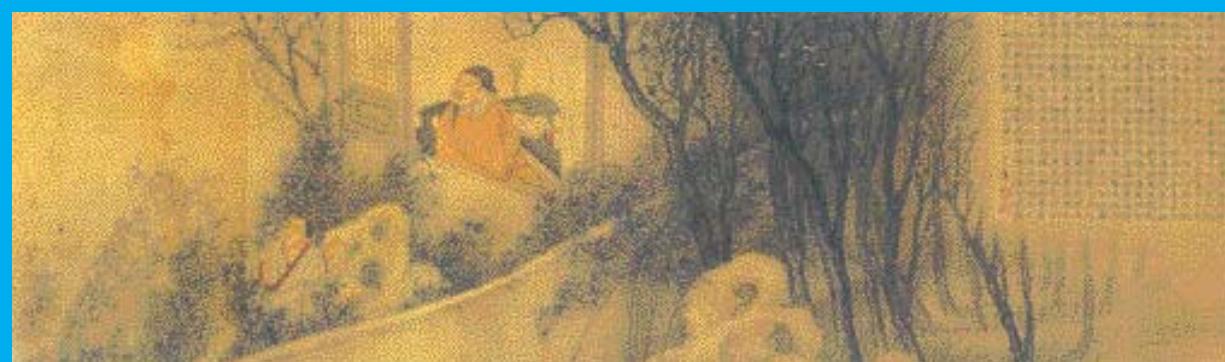
## 미술품 경매

에이옥션 20일 무등파크호텔서

김기창·허련·작 등 239점 선봬



▲ 소정 변관식 작 '산수'



▲ 이당 김은호 작 '방야독서'

미술 시장이 경기침체로 크게 위축된 가운데 광주에서 200억 원대 대규모 미술품 경매가 열린다.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이옥션은 오는 20일 오후 6시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국내 인기 작가의 작품 239점을 판매하는 '제6회 근현대 및 고미술품 경매'를 연다. 이번 경매는 이 지역에서 전문 경매업체가 여는 첫 정식 경매로,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미술계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여작자의 면면도 화려하다. 서양화는 이우환, 김종환, 사석원, 강요배, 김강용, 이강소, 전광영, 안창홍, 전혁립, 최영립, 천경자, 도상봉씨의 작품이 출품됐다. 한국화는 김기창, 김은호, 박래현, 박생광, 박승무, 변관식, 이상범, 이응우, 이응노, 황성하씨의 작품이 선보인다. 지역 미술 애호가들이 쉽게 접해 보지 못했던 주사 김정희를 비롯해 강세황, 신위, 이산해, 이삼만, 최용식, 최석환 등의 고미술품도 매물로 나왔다.

또 허련, 허건, 허백련, 오지호, 오승윤, 강연균, 손세형, 임직순, 황영성, 이태길, 최영훈, 진원장, 조방원, 최상중 등 광주 지역 작가의 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이밖에도 국내 미술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아 작품이 저평가된 강성원, 권여현, 김유준, 노은님, 손문이, 신학철, 유선태, 이경수, 이규경, 이기숙씨 등 젊은 작가들도 신작을 내놨다.

이번 경매의 특징은 중가가 위주의 다양한 작품이 출품된다. 경매 시작과 함께 시장가보다 60% 가량 낮아 일반 컬렉터들이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그동안 최하 1억원선에서 시작한 주사 김정희 선생의 '명흘지송첩'이 6천900만원에 나왔고, 시작가 7천만원이었던 이우환의 '바람으로부터'도 4천800만원에 경매를 시작한다.

작품 프리뷰 전시는 14~20일까지 광주시 총장갤러리(총장서리 3층)에서 열리며, 에이옥션 담당자들로부터 작품에 대한 설명과 미술품 경매 요령 등을 들을 수 있다.

에이옥션 서보훈 총무팀장은 "근래 불황여파로 국내 경매시장의 가격이 낮아져 이번 경매의 시작가도 낮게 책정됐다"면서 "구입 작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한 뒤 경매에 참여하는 게 요령이다"고 설명했다. 문의 063-285-700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청진 이상범 작 '모란'



▲ 이우환 작 '바람으로부터'



▲ 이우환 작 '바람으로부터'